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 강화로 한국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 이인실 특허청장, 제네바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7.5) -
- 회원국 중 첫 번째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인력교환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수) 11시(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과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회담을 가졌다.

* 유엔(UN)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업무협약 체결>

양측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시 탕 사무총장이 제안한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력을 상호 파견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회원국 중 첫 번째로 시행되는 인력교환 프로그램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전문가가 한국에 파견되면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인 한국의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회원국 간 하나의 PCT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가 파견되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지원 강화·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점 추진사업 협력>

양측은 한국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발전 경험과 비결(노하우)을 공유해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탕 사무총장은 특허청이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국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80.76억원을 출연함

이 청장은 한국의 청소년 발명교육(한국형 모형),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식재산 금융 등의 경험을 공유해 세계 지식재산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 한국인 전문가 진출·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점 추진사업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탕 사무총장의 청년, 여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논의 참여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청장은 특허·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 지식재산(IP)·혁신 분야를 담당하는 마르코 알레만 사무차장보와도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영업비밀 백서 발간과 지식재산 금융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 출원인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향후 한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WIPO 한국 신탁기금 사업 개요

붙임 2. 한국형 발명교육모델(NICE) 개요

붙임 3. 국제특허출원(PCT) 개요 및 현황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책임자	과 장	윤세영 (042-481-8197)
		담당자	사무관	최교숙 (042-481-8555)

WIPO 한국 신탁기금 사업 개요

□ 개요

- (목적) WIPO 내 영향력 확대 및 지식재산 분야 외교력 증진
- (내용) WIPO 한국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개도국 및 최빈국의 지식 재산 분야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지원 사업 제공

□ 추진 경과

- 특허청 - WIPO 기본협력협정(9개 조항) 체결('01. 11)
- 특허청 - WIPO 신탁기금 설치를 위한 기관간 약정(11개 조항) 체결('04. 6.)
- 1차년도('04)~19차년도('22) 사업* 추진
 - * 예산 : ('15) 10억원 → ('16) 12억원 → ('17) 12억원 → ('18) 9.83억원 → ('19) 9.09억원 → ('20) 7.26억원 → ('21) 7.26억원 → ('22) 8.76억원 → ('23) 8.76억원

□ 주요 성과

- (지재권 개발역량 강화) ①공무원 대상 IP 개발정책 석사(MIPD) 과정 개발·운영, ②고위 공무원 대상 UNIDO 산업개발과 지식재산 과정 개발
- (지재권 활용역량 강화) ①국제 IP전문가 인증과정(AICC) 운영 및 IP 파노라마 개정, ②여성리더 과정 운영, ③IP-R&D기반 창업·혁신 과정 운영
- (지재권 인식 제고) ①블록체인 백서 및 영업비밀 백서 발간, ②발명왕 뽀로로 등 어린이 발명 콘텐츠 보급

□ 국가별 신탁기금* 규모

구분	일본	한국		중국	프랑스
		특허청	문체부		
예산	77억원	9억원	10억원	16억원	3억원

* 2023년 기준 금액(출처 : WIPO Program of Work and Budget 2024/25)

□ 개념과 정의

- 청소년의 발명의욕을 증진시키고 산업인력·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콘텐츠, 네트워크 등을 망라하는 국가 주도의 발명교육 체계
- (NICE)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발명을 통해 사회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 * 전문가 연구용역('22.4~6월)을 통한 한국형 창의발명교육 모델 개발

□ 추진체계

- 전담교원, 표준교재 등 콘텐츠, 발명교육 센터 등 인프라, 관련 법·규정, 발명교육 관련 정규·비정규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진행

<한국형 발명교육을 ODA로 추진하기 위한 NICE 모델>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 (개요) 하나의 특허출원서를 자국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일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연혁) 1978년 발효된 PCT 조약에 우리나라는 1984년 36번째로 가입('23년 2월 기준 157개국 가입)

일시(연)	내용	비고
1978	PCT 발효	18개국 비준서 기탁
1984	한국 PCT 발효	
1997	한국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	
2009	PCT 국제공개어로 한국어 시행	2007년 WIPO 총회 결정

□ 국가별 PCT 출원 현황(상위 10개국)

구분	국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건수	증가율(%)
1	중국	48,905	53,345	59,193	68,923	69,604	70,015	0.6
2	미국	56,676	56,142	57,499	58,477	59,403	59,056	-0.6
3	일본	48,205	49,702	52,693	50,578	50,275	50,345	0.1
4	대한민국	15,751	17,014	19,073	20,045	20,723	22,012	6.2
5	독일	18,951	19,883	19,358	18,499	17,266	17,530	1.5
6	프랑스	8,014	7,914	7,906	7,782	7,334	7,764	5.9
7	영국	5,568	5,641	5,773	5,889	5,841	5,739	-1.7
8	스위스	4,488	4,568	4,627	5,119	5,461	5,367	-1.7
9	스웨덴	3,975	4,162	4,202	4,351	4,441	4,471	0.6
10	네덜란드	4,430	4,138	4,055	3,996	4,119	4,092	-0.6
전체		243,511	253,000	265,381	275,900	277,182	278,100	0.2